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북스타트한국위원회,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

북스타트한국위원회는 9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아가에게 책을, 미래의 희망을-세계 북스타트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북스타트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먼저 9월 22일(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영국 내셔널 북스타트 프로그램” 주제로 웬디쿨링(Wendy Cooling, 영국 북스타트) 자문위원이 발제 하였다.

웬디쿨링 자문위원은 북스타트를 지역 도서관과 보건의료전문가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며 북스타트는 책을 나누는 즐거움이지 아기들에게 독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스타트의 긍정적인 효과로 어린이들의 읽기, 수리적 사고, 말하기, 듣기 능력은 매우 어린 나이에 독서를 즐기기 시작한 어린이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였다. 또한 북스타트를 기금 마련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스타트는 계속해서 영국 전역의 아기들과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즐거운 활동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북스타트 운동 전개 소식이 매우 반가웠으며, 한국의 북스타트 캠페인이 시험 프로젝트에서 발전하여 전국에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본 북스타트의 현황”을 주제로 사토이즈미(Satou Izumi, 일본 북스타트지원센터) 이사가 발제 하였다. 사토이즈미 이사는 일본의 북스타트는 2000년의 ‘어린이 독서의 해’가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면서 2001년 4월에는 북스타트지원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일본의 북스타트 운동은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506개 시구정촌

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토이즈미 이사는 북스타트의 5가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언급했는데, 첫째, 북스타트는 아기와 보호자가 마주해 그림책을 매개로 ‘따스하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공유하자는 취지이다. 둘째, 북스타트는 지역에 태어난 모든 아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북스타트는 운동의 메시지를 직접 설명하면서 그림책을 건네준다. 넷째, 북스타트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한다. 다섯째, 북스타트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선전, 영리,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본의 각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시행착오와 노력을 거듭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일본에서 북스타트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이 활동을 ‘육아지원 운동’ 내지는 ‘사람 만들기·(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책(언어)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는데 공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스타트는 지역의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나 입장을 뛰어넘어 “지역에 태어난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자,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들자”는 바람을 공유해야만 운동의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북스타트 운동의 구조는 실제 활동을 위한 지역 내의 연대와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 및 단체, 그리고 북스타트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의 최고 매력은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고 그 사이에 책(언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북스타트 시범운동 효과

에 관한 연구 : 3개월간의 효과 검증”에 대해 서는 광금주(북스타트한국위원회) 위원이 발제 하였다. 광 위원은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생후 6~7개월의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랑구청 보건소에 DPT 3차 접종을 하러 온 영아의 엄마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간략히 설명한 후 연구 참가에 동의한 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152명(남:87, 여: 65)의 6~7개월 영아와 부모가 참여집단으로 선정되었고,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생후 6~7개월 29명(남: 12, 여: 17)의 영아와 부모가 비 참여 집단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크게 설문지 방법과 비디오 촬영에 의한 관찰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지에 답하게 하고, 어머니와 영아의 자연스러운 놀이와 책읽기 상황을 15분~20분 가량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이 연구는 올해 말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총 3회의 측정이 계획되었다. 2003년 9월 현재, 1차 및 2차 측정이 완료되었다. 3차 측정은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참여한 가정과 영아에 대한 기본 정보는 참여집단 152명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되었다. 1차 및 2차 측정에 모두 참여한 참여집단 총 119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하는 시기인 1차 측정과 3개월이 경과한 2차 측정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엄마와 아기가 책을 읽는 정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정도, 책을 읽어주는 분량에 있어서 전반적인 증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둘째, 어머니들은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책을 통해 영아가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고 영아와의 상

호작용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운동에 참여한 이후 어린 아기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셋째,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영아가 주위환경에 관한 탐색 행동, 문제 해결력과 수 개념을 포함한 인지발달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영아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북스타트 운동 참여 이후 영아가 자기 자신에 관한 개념이 점차로 발달하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등의 사회인지 발달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영아가 상호 작용 놀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사회성 발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북스타트 운동 참여 이후 어머니들이 영아들의 학습을 도와주고자 여러 가지 자극들을 제기하는 등, 양육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여덟째, 비 참여집단과 비교해 볼 때 참여집단이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이후 책을 읽음으로써 영아의 정서가 풍부해진다는 인식, 어른과 애정적인 교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인식,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 영아의 상상력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아홉째, 비 참여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북스타트 운동 참여가 엄마와 아기의 책을 매개로 한 상호 작용을 보다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참여하지 않은 영아와 비교하여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한 영아의 인지 발달(탐색, 행동, 문제해결력, 수개념, 주의력)에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북스타트 운동의 참여는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살펴 본 영아의 사회인지능력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놀이의 측면에서 비 참여집단과 비교할 때, 북스타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한다.

이 연구는 생후 6개월 된 영아에게 책을 보급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난감처럼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경험이 부모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영아의 발달 전반에 걸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 연구는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장기종단적인 추후 연구들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9월 23일(화)에는 먼저 서울여자대학 바롬관 국제회의실에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북스타트가 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웬디쿨링(영국 북스타트) 자문위원이 먼저 발제하였다. 웬디쿨링 자문위원은 중요한 성장상의 측면들은 북스타트에 의해 향상된다면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기가 잠자리에 들게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낮에 잠깐 책을 읽어주는 것은 책을 읽어주는 사람(부모, 조부모, 아기를 돌보는 사람, 언니/누나, 형/오빠)에게 아기와 매우 특별한 관계, 즉 함께 한 즐거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어린이의 발달하는 지식, 커져 가는 안심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준다고 말하였다. 어린이들은 자신들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관계 형성은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있어 안전한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야기에 대해 질문하고 의사 소통하는 것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인생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의사소통은 매우 어린 나이에 시작될 수 있고 어린이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유년기 그림책들은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사랑, 새로운 동생이 가족에 가져 올

수 있는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과 경험에 관한 것이라면서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어린이의 삶에서 없어진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감정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취학 전에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는 바로 집중능력이라고 하였다. 북스타트 연구는 북스타트 어린이들이 학습, 책, 학교 자체에 긍정적인 자세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책과 지식은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자신감을 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이 북스타트 아이디어의 중심이지만 어른들에 대한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완전히 읽고 쓰기가 가능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북스타트 운동이 아기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시라이 테츠(Shirai Tetsu, 일본 북스타트지원센터) 사무국장이 발제하였다. 시라이 테츠 사무국장은 북스타트의 본격 실시로부터 불과 2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북스타트가 아기의 행동 발달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를 학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면밀히 추적 조사한 결과는 아직까지 없지만 2000년 11월부터 일본 최초로 북스타트 시범실시를 했던 도쿄 스기나미구의 설문조사결과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조사대상은 도쿄 스기나미구 3개의 보건소의 생후 4개월 정기 검진아의 보호자였고, 설문조사를 통했다. 그 결과로는 부모의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동이 변화했다. 출생 12개월 미만 영아라도 그림책 읽어주기, 도서관 함께 가기 등이 가능하고 유익함을 인식하였다. 현재까지 북스타트 지원센터에 접수된 보호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기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자

와 그림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영아의 성장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 즉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쌓는 일에 북스타트가 큰 공헌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아기가 장차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아기는 신뢰할 수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을 통해 의사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이윽고 언어를 터득해 간다. 북스타트는 풍요로운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계기를 만든다. 셋째, 북스타트는 아기의 행복을 기원하는 운동이다. 아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의 행복이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빠의 협력도 불가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육아 지원도 필요하다. 육아에 불안울 느끼는 엄마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행정기관 관계자부터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육아에 대한 따뜻한 지원 네트워크가 지금 필요하다. 아기의 행복한 성장, 자연스럽게 무리 없는 행동을 위한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역에 있어서 북스타트의 실천은 그런 지원 네트워크를 지역민들의 연대에 의해 실현시키는 것이다.

같은 날 교보문고 강남점에서 열린 서점강연에서는 “아기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북스타트”라는 주제로 사토이즈미(일본 북스타트지원센터)이사가 발제하였다. 사토이즈미 이사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사랑받고 있다는 점, 살 가치가 있다는 점등을 느끼는 것이라며 가장 신뢰하는 사람(엄마와 아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아기는 자라서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기 때의 이러한 시간의 축적 여부가 자라서 어떤 식으로 사람과 만날지, 어떻게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북스타트는 아기와 더불어 그림책 펼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지역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주어져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서 예를 들어, 그림책 강연회를 할 때 참가하는 엄마들은 본래부터 그림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껏 그림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나, 알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좋을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바로 건강을 체크하던 보건소라고 하였다. 보건소에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아기와 보호자의 마음건강도 챙기자는 발상, 여기에 북스타트 운동의 독특함과 특별함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북스타트가 시작된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속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는 곳이 많다. 이를테면 도서관의 아기 그림책 코너를 충실히 한다든가, 아기용 전래동요 배우기 모임이나 이야기 모임의 개최, 보건소나 아동회관에 그림책 코너를 만드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만1세 미만뿐 아니라 만1세 반, 만2세나 3세 등 정기검진 때마다 그 연령에 맞는 그림책 목록을 배포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나눠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하였다. 북스타트를 계기로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그림책들과 즐겁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보호자들 역시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안심하고 육아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스타트를 시작할 무렵에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에 넘친 목소리, 책을 읽어주시던 그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북스타트 운동이 각지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스타트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운동으로 정착됨으로써 모든

아기와 보호자들에게 행복한 생각과 기억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육아가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면서 강연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 아기, 책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기”라는 주제로 크리스미드(Chris Meade, 영국 북트러스트) 사무총장이 발제하였다. 크리스미드 사무총장은 부모로서 어린이들과 책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가장 좋은 일들 중의 하나라면서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보며 꿀꺽거리는 소리를 내고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 애쓰고 아기가 인식하는 이미지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은 도서와 독서 장려에 일생을 보내고 있다면서 첫 직장은 서점이었으며 “창조적 독서”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15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책과 사람을 함께 모으는 목적을 갖고 있는 영국 전국 단위의 자선단체 북트러스트에 자신이 왔을 때 북스타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다면서 경험을 언급하였다.

북스타트는 모든 가족에 무료로 책을 배포하는데 아기의 생후 8개월 의료 검진 시 우리의 가정방문 간호사들이 책을 나누어준다. 캔버스 천으로 제작된 가방에는 도서관 이용 초청장, 최우수 아기 도서, 아기들을 위한 도서들의 긍정적인 효과와 즐거움에 관한 그림 설명자료가 들어있다. 북스타트는 웬디쿨링씨와 북트러스터가 1992년 버밍햄 대학, 남 버밍햄 의료 당국, 버밍햄 도서관과 협력하여 두 자선 신탁 기관, 로울드 달 재단과 언원자선 신탁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 300여명의 부모들과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보건 센터에서 북스타트 팩을 받았으며 그 가족들은 모두 모니터링 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북스타트 아기들은 기본 학습능력의 9가지 범주에서 같은 반 어린이들보다 확연히 우수

하다는 것이었다. 북스타트의 혜택을 본 어린이들은 읽기 쓰기 능력과 수리적 사고 능력에서 뚜렷하게 앞섰다.

또 다른 연구도 실시하였는데, 북스타트 팩을 받고 아기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들의 비율이 78%에서 91%로 증가하였다. 도서관 방문이 65%에서 85%로 증가하였다(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방문), 도서관 회원이 5%에서 31%로 증가하였다. 가족 행동에 있어 변화가 생겼고 부모/양육자의 기술과 자신감이 개선되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언어 습득이 개선되었다.

아기를 위한 도서의 표준은 북스타트를 통해 현격히 개선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준 있는 도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북터치라는 북스타트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시각장애 아기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특수 자료가 담긴 가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방에는 오디오 북,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책, 점자로 된 그림책이 들어 있다. 북스타트 플러스는 도서관들이 아기들을 위해 마련하는 운율 시간과 같은 모든 활동에 주어져서 아기들이 북스타트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음으로 18개월 이상 된 어린이들에게 북스타트 플러스 가방을 배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3세가 된 어린이에게는 ‘나의 북스타트 가방’을 나누어주어 어린이가 고르는 책을 채울 수 있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기들이 북스타트를 시작하게 하고 우리는 아기들이 계속해서 책과 함께 자라기를 바라며 평생을 살아가면서 책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으로 더 많은 행복한 가족들이 함께 책을 읽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하면서 강연을 마쳤다(글 : 심효정, shjcap@hitel.net).